KAIST 간 진우 스님 "양자역학 '空 사상' 일맥상통"

진우 스님, 2월 10일 카이스트 특강
'양자역학·중도' 주제 교수에 강연
"선명상 수행, 과학 연구에 도움"
선명상 대중확산 계획도 밝히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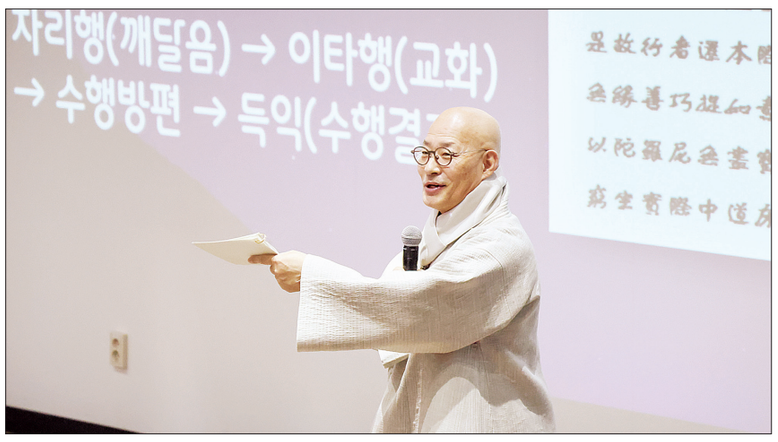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카이스트에서 '불교와 과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불교와 양자역학의 철학적 접점을 조명하며 연기법, 공 사상, 중도 등의 개념이 현대 과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진우 스님은 2월 10일 카이스트 본원에서 '의상조사 법성게와 해인도를 통해 본 양자역학과 중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보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카이스트는 학과장 이상 보직 교수들의 인문사회 리더십 강연 모임 '매세월 서연(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서연)'을 통해 교수들이 만나 서로의 학문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불교와 과학'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원인과 결과는 상호의존적으로 상관하는 관계에 있음을 뜻하는 '연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자역학'과 불교 핵심 사상인 '공 사상'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상을 탐구하는 방식에서 유사한 접근법을 가진다는 것. 진우 스님은 "불교는 존재를 그대로 바라보며 현상이 상호의전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설명한다"면서 "과학도 실험과 관찰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밝히려 하며, 특히 양자역학은 실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고 피력했다.

색즉시공과 파동-입자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양자역학에서 물질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개념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보이는 물질(色)도 궁극적으로는 공(空)한 성질을 가진다"면서 "물질은 확정된 실체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양자역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카이스트 강연에서 양자역학과 불교의 연계성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제공=조계종

관찰자의 역할과 유식론(唯識論)에서도 스님은 "관측자가 개입해야 물질의 상태가 결정되는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는 불교 유식학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개념과 유사하다"면서 "유식론은 외부의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에 대해 제행무상(諸行無常) 개념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한 스님은 "모든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제행무상은 물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측정 순간마다 상태가 다르다는 불확정성 원리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명상의 과학적 효과에서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선명상이 과학자들의 창의성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스님은 "현대 연구에서는 명상이 뇌의 집중력, 감정 조절, 스트레스 해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불교의 명상 수행법이 집중력 향상과 사고의 명확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AI와 불교적 통찰, 환경문제와 불교적 시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

이번 강연은 불교와 현대과학의 만남을 통해 실제(reality)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조명하는 자리로 양자역학과 불교 사상 간의 철학적 연계성을 분석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이광형 총장은 "앞으로 카이스트명상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명상의 과학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기반을 구축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의 연기법과 양자역학의 얽힘, 공 사상과 파동-입자 이중성, 관찰자 효과와 유식론 등의 개념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현대 과학이 탐구하는 물질 세계와 불교가 추구하는 의식의 세계가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연 후기를 남겼다.

조계종은 양자역학 연구자 김갑진 교수 등을 불교계에 초빙, 선명상과 과학의 만남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담양 선명상센터 순항"

김영록 전남지사 "5월 중 완료"



국민 정신 건강을 도모하고 간화선 중흥을 목표로 조계종 37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 담양 선명상센터 건립이 오는 5월 중에 마무리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담양 선명상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사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재 담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명상센터 건립 사업이 5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총무원장 스님이 강조한 선(禪)문화와 명상 대중화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최근 제주항공 참사를 포함해 많은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마음을 치유할 선명상을 보급하고 연구할 선명상센터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대립과 양극화가 심해지기 마련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전라남도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화답했다.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수습을 지원한 종단과 총무원장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전남지사는 "종단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덕분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참사 유가족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종교계의 큰 어른으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서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지금도 참사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계가 당연히 국민을 위해 동참하고 수습해야 할 문제다. 김 지사가 수습 과정을 잘 이끌어 유족을 위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법오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 사서실장 일감 스님과 강효석 문화융성국장, 김규웅 대변인, 장혁 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김민재 기자

"사찰서 '국립공원의날' 행사 추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 2월 11일
원주 사찰서 행사 계획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만나 환담하고 3월 3일 국립공원의날 기념식을 사찰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사진〉

이날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과 사찰림은 환경부의 업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스님들이 사찰림을 보존했기에 국립공원이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대산이나 치악산 등 국립공원 주요 지역은 사찰을 중심으로 산림이 잘 보존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은 "조계종과 국립공원은 관련이 많고, 스님들이 환경 보존에 이바지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 노고가 큰 만큼, 3월 초 열리는 국립공원의날 기념식을 국립공원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 사찰에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해 대구 엑스코에서 국립공원의 날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2020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임은호 기자

조계사 정월 사천왕재…한 해 안녕 기원

2월 12일 일주문서…1000명 모여


조계사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사천왕재를 봉행했다. 주지 원명 스님이 향을 올리고 있다.

거센 눈발이 서울 도심을 뒤덮은 정월대보름 새벽, 사천왕상이 조성된 조계사 일주문 앞에는 1000여 명의 불자가 모였다. 한 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마음은 추위도, 불편함도 막지 못했다.

2월 12일 오전 7시 조계사는 하루를 여는 명종 11타와 함께 '길상성취 사천왕재'를 봉행했다. 불자들을 보호하는 사천왕에게 나와 가족, 이웃,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복덕과 평화를 비는 의식이다. 정초 신중기도 대미를 장식하는 사천왕재는 2018년 정월대보름마다 조계사에서 열리고 있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그 전통을 이어갔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사중스님들, 신도회 등은 경내 대웅전에서 일주문까지 업장소멸과 만사형통을 발원하는 '희망의 초'를 이운했고, 곧이어 기도의식을 거행했다. 기도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불자들은 향을 올리며 각자 한 해 소망을 기원했다.

원명 스님은 불자들에게 청정수를 뿌려 정화의 의미를 더했고, 사중스님들은 팔을 뿌려 액운을 쫓았다.

원명 스님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지만, 마음이 따뜻해서인지 춥지 않다. 올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늘 기도 공덕으로 잘 극복해 내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길 기도한다"며 "사천왕님들의 가피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무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한편 사천왕재를 마친 후에는 동안거 기도 회향과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인 지신밟기가 진행됐다. 김내영 기자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2년 코스)
개 강 2025년 양력 3월 7일 금요일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마다 오전 9시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포교사 및 재가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휴대폰 010-5306-0856
은행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금요일 교육 시간표
오전 9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0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1시 작법 진효스님 / 보조 정심법사님
오후 1시 화청연습 정덕스님
오후 2시 행사연습 진효스님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웅천 합장(合掌)
▣수업 시간표는 다가오는 행사 일정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행사문의 – 윤달 생전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 강주 진효스님 010-5306-0856

SGBE 魚山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강남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강남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강남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남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요일) 오후3시
장 소 강남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